

지구를 위한  
그린테이블 전시회

“지구 온도 1.5°C”



## 기획 의도

대전환경교육센터는 지구의 날(4월 22일)과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이하여 대전 시민과 함께 ‘지구를 위한 그린테이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구를 위한 그린테이블’은 시민들이 어렵게 느끼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기후변화와 우리의 삶을 연계해서 생각해보는 시민참여형 환경교육프로그램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진행 된 ‘지구를 위한 그린테이블’ 행사에 1,000여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본 전시의 작품들은 ‘지구를 위한 그린테이블’ 진행 후 시민들의 느낌, 생각, 의견을 담아 지역의 작가들이 만든 작품들로 구성되었습니다.

## 대여 안내

작품을 통해 환경문제와 기후위기에 대한 의미, 중요성을 더 많은 시민들과 나눌 수 있길 바라며 희망기관에 대여하고 있습니다.

대여를 희망하는 학교 및 단체, 기관은 대전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 상담신청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전시 서문

지구 온도 1.5°C, 손쉽게 보일러나 주전자의 물의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비열(比熱)\*의 권력’을 지닌 현대의 문명 속에서 이는 참으로 사소하고 작은 단위처럼 느껴진다. 허나 지구상의 모든 문명들은 그 힘을 너무도 가볍게 사용하면서 중국엔 점차 인간 자신의 손을 벗어나고 있다.

이는 우리의 무관심과 이기심으로 지구에게 자행되는 폭력이며 미래로의 상생과 유지를 가로막는 하나의 벽으로 자라났다. 그 벽은 차차 임계에 다다르게 되고 날카로운 조각으로 무너져 내려 지구 전체에 흩뿌려질 것이다. 그리고 지구 안에 살아가는 인간도 그 파국에서 예외일 순 없다.

이렇듯 프로메테우스에게 불을 전수받고 힘을 얻게 된 순간, 인간에게 그것에 따른 연쇄적 반응과 결과가 생기고 또 그것을 수습할 책임과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이 점을 너무도 간과하고 있다.

이에 대전환경교육센터와 작가들은 표본으로서 대전 시민들의 인식과 비전을 조사하고 이 문제를 조금 더 개념적으로 친근하게 다가가며 환기시키기 위해 예술이라는 대중의 접근법을 이용하였다.

작가들은 각 질문과 설문 결과를 연구하고 자신만의 철학과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대중에게 문제와 개념을 깊숙이 전달하도록 고심하였으며 작품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영향력을 높이고자 노력한다.

재야 작가는 순환적인 관계로서 인간과 자연을 고찰했고, 고현종 작가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발현되는 콤플렉스로 인해, 생물이 마땅히 지녀야 할 생물성의, 원형과 유리됨에 대해 재조명하였다. 신현건 작업자는 우주 속에 속해 있는 인간으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반복과 연결로 인식의 전환을 모색하였다.

세 작업자의 개인적 양식은 다르지만 결국 미래의 상생과 조화를 기본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미약하게나마 긍정적 변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소원한다.







### 고현종

#### Paper Seed 종이씨앗 종이에 연필

학생들의 어제의 말을 주목하고 기록했다. 오늘이 되기 이전의 말들 스핀지처럼 흠뻑 흡수하고 힘주어 쥐면 쏟아지는 물을 구 위에다 옮겨적었다. 고치-내지는 씨앗의 형상으로, 이 낱알 한 종이구를 씨앗으로 동글리고 고치로서 허공에 띄워본다.

#### "고양이에게 날개가 달릴 것 같아 ㅎㅎ"

배접한 종이에 연필 수채 120x50

희망과 절망의 전망을 둔 답안지를 전달받았다. "지구가 쓰레기 밭이 된다"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등 혼란한 세상을 예감하는 답변들이 절반 이상을 채웠다. 가장 눈길을 끌었던 대답은 설문지의 무게에 아랑곳 없이, "고양이가 날개가 달릴 것 같아 ㅎㅎ" 유머로 튀어나오는 탄식이기도 했다. 한편 우리는 희망과 절망으로부터 떨어져 번이만이 있는 세계에서 살고 있다. 멈추거나 방향을 돌릴 길 없는 인간의 야만으로부터, 생태계란 비극의 나선형으로 변주를 이어가는 지구의 시간이다.





## 신현건

연맥(連脈) 천위에 아크릴 50X120cm 2021

계통도와 탄생과 기원 주체인 여성 루시를 형상화하고 온난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산호를 연결하였다. 이를 전체가 반복되는 프랙탈과 같은 구조를 지닌 계통도와 산호의 이미지를 한 가닥으로 보고 인류와 무관치 않음을 나타내려 하였다. 그렇게 계통도를 소실점 삼아 기원을 보여주며 인류를 받치는 아래 산호로 인간의 위태로움을 나타낸다.